■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77-102.
http://doi.org/10.17948/kcs.2019..85.77

【특집1: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

한국 불교 사전 편찬 현황보고

조영미(趙英美)*

목 차

1. 한국 불교 사전 편찬 개요와 흐름
2. 불교 사전의 속성
3. 사전 편찬 지원의 필요성

국문초록

한국 불교 사전의 편찬 흐름을 개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 후에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먼저 근현대 이후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사전으로 운허용하의『불교사전』, 한국 최초의 선학 전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교・일지・신규탁 편찬『선학사전(禪學辭典)』,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을 표방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한국 불교 술어의 발굴과 결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산불교대사림』등을 비롯하여 모두 7권의 책을 들어 불교 사전의 편찬 흐름을 개괄하였다.

한국 불교 사전의 역사를 써 가고 있는『가산불교대사림』을 통해 우리나라 사전 편찬 현실의 명과 암을 짚어보고, 왜 전문 분과 사전이 요구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주제어: 전문 분과 사전, 선학, 선종.

1. 한국 불교 사전 편찬 개요와 흐름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의 불교 사전이다. '불교'라는 2음절이 포함하는 외연은 넓고 크며 깊다. 우리나라 불교사로만 국한하여 보아도 1700년 역사 속에서 산출된 다양한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비해 그간의 학술적·문화적 지식 정보를 담아내고 이 분야 학문을 선도할 결정체로서 명실 공히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학술 역량의 총체인 우리말 한국 불교 사전'이 부재한 시간은 길었고, 앞으로도 산적한 과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불교 사전[1]의 편찬 흐름을 개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 후에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천견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간행 시기 순서상으로, 운허용허의 『불교사전』, 보련각 출판 7권 『한국불교대사전』, 정승석 편저 『불전해설사전』, 이철교·일지·신규탁 편저 『선학사전』, 홍법원 출판 『불교대사전』, 시공사 출판 『시공 불교사전』 그리고 1998년 첫 출간 후 현재까지 간행 진행 중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 『가산불교대사림』을 대상으로 간략히 그 성과를 타진한다. '불교 사전'이 주제이고 대상이긴 하나 불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살펴볼 여력은 되지 못하므로 필자의 전공 부문인 '선(禪)'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1) 운허용하(耘虛龍夏, 1892-1980)의 『불교사전(佛敎辭典)』[2]

근현대 이후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사전으로는 운허용하의 『불교사전』

1) 본고에서는 시기상으로는 근현대 이후, 형태상으로는 우리말 사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전으로 소급하면 일례로 蓮潭有一(1720-1799)의 『釋典類解』가 있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朝鮮寺刹史料』나 權相老(1879-1965)의 『朝鮮寺刹全書』 등을 사전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말로 기술되고 총합적 성격을 띤 불교 사전과 필자 전공과 관련 있는 선학 사전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하에서 개괄하는 7종의 사전은 김영욱, 조영미가 집필한 해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이들 사전을 개괄 정리한 해제로는 현재까지 이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해제자에게 자료를 부탁하여 받아 이 공간에 미리 소개함을 밝혀둔다.

2) 耘虛龍夏 編著, 『佛敎辭典』,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61.

(1961, 동국역경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전 편찬자는 "사전 없이는 불교교육도 대중화도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우리말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환・법정・정묵・법안 등의 스님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탈고하였다.

연구자는 물론 대중이 참조할 만한 이렇다 할 사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학자에게 기본적인 불교용어를 널릴 알릴 목적으로 편찬된 이 사전은 쉬운 한글로 간명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그럼에도 교학(敎學)과 선학(禪學) 그리고 역사・예술・문화 등 불교 전반에 걸친 14,000여 항목을 올림말로 수록하였다. 사전으로서는 참조할 전례나 편찬 경험이 없었기에 일본 동방서원(東方書院)의 『(模範)불교사전(佛敎辭典)』(成光館, 1932)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올림말 선정에서 정의까지 참고하였다. 한국불교와 관련한 인물 항목은 『동사열전(東師列傳)』, 『조선인명사전(朝鮮人名辭書)』(조선총독부, 1937)을 기본으로 삼고 그 밖에 비명(碑銘), 행장(行狀), 문도들의 기록을 참고하였으며, 사찰 항목은 『조선사찰전서(朝鮮寺刹全書)』, 『사찰일람표(寺刹一覽表)』, 『사찰연혁조사(寺刹沿革照査)』 등을 따랐다. 또한, 강원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서장(書狀)』 등에 나오는 용어를 항목으로 뽑아 올리기도 하였다.

이 사전이 편찬되기까지에는 평소 역경(譯經)에 지대한 공력을 쏟아 부으며 1964년에는 동국역경원 설립이라는 도약판을 마련하기도 한 편찬자 운허용하 스님의 발심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보기에는 천 쪽이 미처 안 되는 단 한 권의 소박한 사전일 뿐이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발간이 불가능했다. 선학원 원장 석주 스님 그리고 자운 스님의 도움에 힘입고, 운허 스님의 화주인 수광(壽光) 이만수(李晩秀)와 오보명일(吳普明日) 부부가 당시로서는 거금인 500만 환을 단독으로 희사하여 간행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눈앞의 도움과 역량이었다면, 기저에서 흡수한 자양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시공간을 떠나 축적된 선대의 업적이라는 점이다. 이 사전 머리말에서 대본이라고 밝힌 『(模範)불교사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본적 참고자료는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한 사전들이다. 현대 불교사전의 효시격인 직전득능(織田得能)의 『불교대사전(佛敎大辭典)』(大倉書店, 1917)과 현대 중국어로 완성된 최초의 불교사

전인 정복보(丁福保)의 『불학대사전(佛學大辭典)』(醫學書局, 1925) 그리고 일본 정법안장주해전서간행회(正法眼藏註解全書刊行會)에서 발행한 『선학사전(禪學辭典)』 등을 부수적으로 참작하였다.

이후에서도 언급하겠으나, 특히나 사전 편찬에서 선행 업적은 필요불가결한 참조자료일 수밖에 없다. 선행 사전을 참조했다는 점이 곧바로 해당 사전의 결함이나 취약점으로 가볍게 지적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극복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2) 보련각 출판 7권 『한국불교대사전(韓國佛教大辭典)』[3]

이 사전이 편찬되기까지의 중심에는 보련각(寶蓮閣) 이봉수(李奉洙, 1933-2004) 사장이 있었다. 30여 년 동안 불교서적 출간을 업으로 삼아 왔던 그이지만, 불교 관련 연구자들 대부분이 외국 사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출판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늘 안고 있었다.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러한 고민이 이 사전 출간의 핵심 동인이 되어 9년의 시간을 들여 전 7권에 올림말 약 7만 5천 항목을 수록해 1982년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한역(漢譯) 경전과 문집을 중심으로 삼고, 정복보의 『불학대사전』을 주로 참조하면서 대표적인 일본의 불교사전들과 『범한사전(梵漢辭典)』, 『선학사전(禪學辭典)』 등에서 항목을 추출하여 부족한 내용은 보충하였다. 당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이 사전 역시 기존의 외국 불교사전에 나오는 정의와 원문을 답습한 항목이 대부분이고 편찬자들이 그 자료를 검토하거나 그와 다른 자료를 수록하는 작업까지는 시도하지 못하여 선행 사전을 추종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주요 항목마다 해당 원전을 수록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전거가 불확실한 자료까지 그대로 옮겨 와서 혼동을 주기도 하며, 선행 사전을 잘못 이해하고 서술한 예도 적지 아니하게 발견된다. 또한 많은 항목에서 원문을 제시하지 않아 원문 수록 여부에 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행

3) 韓國佛教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한국불교대사전』, 보련각, 1982.

사전 여기저기서 취합하기만 하는 방식으로 만든 사전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인용 전적도 이름만 나열되었을 뿐 서지적 배경을 알 수 없어 학문적 증명이나 검증의 과정과 거리가 멀다. 경론을 인용할 경우도 번역문을 원문과 대조하여 보면 확실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산발적으로 드문드문 따다가 번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원문만 수록한 경우더라도 그것을 해설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제시해야 하지만 기대할 만한 서술이 없다.

이 사전 역시 편찬자의 발심에서 비롯하여 물심양면의 노고 끝에 불교계는 물론 연구자들에게 이바지한 점은 크지만, 이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3) 정승석 편저 『불전해설사전(佛典解說辭典)』[4)]

이 사전은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그 밖에 불교 관련 주요 명저를 대상으로 수용했으며 더 나아가 불교사상의 배경이 되는 인도와 중국의 문헌까지 포괄하여 해설한 저작이다. 총 308개 문헌을 항목으로 삼았으며, 1989년에 민족사에서 출간되었다.

불교 내의 세부적 분야별 사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저술이 출현하였다. 특히 문헌만 전문적으로 해설한 사전이 전무했던 당시에 이 분야에서 후대의 도약을 위한 토대가 되는 전범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기존의 불교사전에서 소략하게 다루었던 문헌 항목을 독립시켜 일정한 기획 방향에 따라 확고한 모양을 보여 주었다.

편자는 머리말에서 일본 춘추사(春秋社)에서 발간한 『불전해제사전(佛典解題辭典)』(『新佛典解題辭典』 第二版, 1977)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한 사전을 기본 자료로 쓰고 있지만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편자 스스로 고려대장경·한글대장경·한국불교전서 등 우리나라 불전에서 출처를 제시하고 한국불교찬술문헌을 첨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보완을 목적으로 「고려대장경목록」과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 출판부, 1976), 한글

4) 정승석 편, 『佛典解說辭典』, 민족사, 1989.

번역의 단행 불전, 불전 관계의 연구논문 및 해제, 기타 연구서 및 번역서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불교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인도 고전도 불교사상 성립의 배경인 동시에 발전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견해에 따라 항목에 포함시켰다. 인도고전에 대한 상식이 인도불교 이해에 필수적인 것처럼 중국불교 찬술 문헌으로 도교 관련 문헌을 일부 소개한 연유도 동일한 맥락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일본불교 문헌을 편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그 기준은 일본불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문헌으로서 한국불교와 대비할 만한 자료이다. 티베트불교 문헌을 수록한 것도 이 사전이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수한 불전에서 주요한 문헌을 선별하여 길잡이 역할을 해주며, 각 항목에 대한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 권수 쪽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한글대장경이 있는 경우에도 권수를 밝혔으며 참고문헌의 경우도 권수와 쪽수를 명기하는 등 전문서적으로서 돋보이는 내용과 형식을 갖춤으로써 서지를 항목으로 사전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철교・일지・신규탁 편찬『선학사전(禪學辭典)』[5]

한국 최초의 선학 전문 사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9,100여 올림말을 수록하였다. 1995년에 불지사에서 출간되었다. 선어(禪語)를 집중적으로 엄선한 전문사전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선어록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당송대(唐宋代)의 구어(口語)와 속어(俗語)를 실어 어문학적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인물・서명・사찰 등도 올림말로 선정하여 풀이하였다. 부록으로 선종사연표(禪宗史年表)・선종법계도(禪宗法系圖)・선종사지도(禪宗史地圖)・선서목록(禪書目錄)・선학참고문헌일람(禪學參考文獻一覽) 등이 실려 있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주요 선어록을 총괄하여 발간하는 선림고경총서 37권에 대한 편집을 1987년부터 불지사에서 맡게 되었는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지사는 이들 선문헌(禪文獻)에 나오는 어휘와 인물 또는 역사 등과 관

5) 이철교・일지・신규탁,『禪學辭典』, 佛地社, 1995.

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선학사전' 편찬에 돌입하였다. 신규탁 교수가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본 사전을 편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이철교 과장이 우연히 불지사에 들렀다가 그 뜻에 동감하여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 놓았던 방대한 자료를 아낌없이 사전 편찬부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2만 개 이상의 단어가 수록된 1만 5천여 장 분량의 선학용어 카드였고 이것이 결국 사전의 기본 자료가 되어 본격적인 편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90년대 초중반은 전산화가 막 동력을 갖추어가던 시기이다. 일반 어학 사전 집필에서도 필수적인 코퍼스(corpus)가 불교 사전과 관련하여 흡족하게 갖춰져 있을 리 없던 때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림말의 정의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 동시에 그 정의를 규정하고 근거를 담보해 주는 용례가 크게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며, 예문의 출전을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쪽수나 문헌정보에서 정확하지 못하여 학문적 엄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전과 가까운 시기에 앞서 출간된 가장 유사한 사전인 일본의 고하영언(古賀英彦) 편저 『선어사전(禪語辭典)』(思文閣出版, 1991)과 비교해서도 그러하다.

5) 홍법원 출판 『불교대사전(佛教大辭典)』[6]

이 사전은 1988년에 완성한 『불교학대사전』을 원류로 한다. 편찬자 김길상이 군법사 제대 후 3-4년간 작업한 끝에 3만 2천의 올림말을 실어 완성한 사전이 『불교학대사전』이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10년 뒤인 1999년에는 『불교대사전』 상하 두 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6만 5천의 올림말을 실은 이 사전은 만드는 데만 10년, 6-7억 원가량을 쏟아 부은 역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후에 휴대하기 간편한 축소판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있어 단권으로 제작하여 2001년에 같은 이름의 『불교대사전』을 제작 발간하였다.

사전의 가치는 엄밀성과 정확성에 있다. 이 두 가치는 양립되는 것이 아니

6) 吉祥 編著, 『佛教大辭典』, 홍법원, 2001.

라 불가분의 관계이다. 먼저 엄밀성은 근거 제시가 그 기준이 된다. 개인의 견해를 피력해 내보이는 논문이나 책과도 분명 차별되는 점이 있다. 모든 사전에서 순서상으로는 정의가 앞에 놓이지만 근거와 자료를 궁구하고 검토한 최종 결과가 바로 정의 서술이다.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그 전거를 밝히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전거를 밝힌 이 사전은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가치를 갖는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에서 나온 선대 사전을 정리하고 표제어들을 취합하기만도 버거웠을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거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임은 사실이다. 전거에 근거한 엄밀한 작업 공정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정확성도 담보하지 못한 곳이 곳곳에 보인다.

선대 사전들의 성과를 거의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는 해도 사전을 구성하고 서술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자 했던 점은 우리나라 사전사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현재 이러저러한 질 높은 사전들이 나올 수 있게 된 데에는 지금의 눈높이로는 부족해보여도 이런 사전들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홍법원 자체로는 모태 『불교학대사전』에서 『불교대사전』 상하 두 권으로, 그리고 다시 단권의 이 사전으로 진행되어 오기까지 비용과 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대대적인 개편은커녕 간단한 수정조차 못하고 정체된 채로 발간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6) 시공사 출판 『시공 불교사전』[7]

콤팩트(compact)한 사전으로 2003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에 2004년 5월에는 문화부 '2004년 학술부문 추천도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초판 7쇄가 발행되었다.

편저자 곽철환의 생각은 이렇게 요약된다. '수많은 용어를 알 필요는 없으므로 표제어 수에 개의치 않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록할 것이며 그 서술은 일상언어로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7) 곽철환 編著,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간단한 정의를 붙였을 뿐, 전거 용례나 참고문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용어와 일반인들이 거의 접하지 않는 불전(佛典)에 전거(典據)를 둔 용어와 전거 없이 떠도는 용어는 모두 버렸다."라고 한 편저자의 머리글로만 봐서는 표제어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역시 알기 어렵다. 표제어를 채집한 과정이나 이 사전 원고를 집필할 때 참조한 책과 도구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다. 흔히 정의 서술의 분량상에서 대중소 항목을 분류하는 사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무엇을 참조하여 서술의 비중을 잡은 것인지, 그리고 대표 항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도 마찬가지로 제시되어 않다.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학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치도 당연히 외면 내지 훼손되었다. 항목 서술의 근거와 참고문헌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까닭에 항목 서술에서도 기존 사전을 답습하여 윤문해서 올리거나 자기주장에 가까운 서술이 대부분이며 정보도 충실하지 않다. 쉽고 간단하게 내겠다는 무리한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항목을 선정하고 서술 비중을 안배함에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선타파(先陀婆)'가 갖고 있는 함의는 온통 생략된 채, '소금, 그릇, 물, 말 등을 일컫는다'는 서술이나, 선 특유 용어들은 거의 싣지 않은 가운데 뜬금없이 지마(只麽, 只摩, 祇麽) 정도가 하나 실려 있는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인터넷 상의 지식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여러 사전 가운데 이 사전을 참조할 이용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모두 떨어지며 정보량에서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항목의 '화두 1125칙과 각각의 칙에 대한 짤막한 해설과 게송 등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서술은 일본 사전을 비롯하여 오래전 낡고 부실한 사전에서 잘못 정의한 서술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전이 너무 미약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대해야 하고 수많은 표제어가 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낡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 척박한 사전 편찬 여건 속에서도 점차로 사전은 방대해지고 있으며 마치 표제어 수 경쟁이라도 벌이듯 이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필요불가결하게 뒤따르는 속

성이자 그 정체성을 발현한 결과일 뿐이다. 각 분야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다양한 체재와 구성을 갖춘 사전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전은 간편함과 간단명료함을 무리하게 지향했을 뿐, 척박한 우리나라 사전 편찬사에서조차 이름을 남기기에는 부족하다. 사전 서비스 방식과 이용 환경 기반이 달라졌을 뿐더러 불교 전공자가 아니라도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낼 만큼 국민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편저자는 곁에 두고 보는 사전을 기획했지만 인터넷 지식백과에서 여러 사전을 종합 제공하고 있어 그 기획 의도는 시대 흐름에서 빛을 바랜 면이 있다.

7)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教大辭林)』[8]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전은 근 4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이다. 이 사전은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을 표방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한국불교 술어의 발굴과 결집에도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 사전의 편찬을 발원한 가사지관(伽山智冠, 1932-2012)은 경율론 삼장에 정통한 학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운(慈雲) 스님의 계맥(戒脈)을 전수하고 운허(耘虛) 스님의 강맥(講脈)을 이었다. 한국불교와 학술문화 진흥 등 여러 방면에서 이바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전 편찬이 최고의 업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한다.

운허 스님이 1961년에 『불교사전』을 발행한 후에 불교종합사전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 가산지관이 1982년에 삼각산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삼천배 기도를 하고 발원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 사전의 편찬자는 '한국정신사의 자존을 일깨우고, 나아가 한국의 불교술어의 일차 결집이라는 사명 아래 소중한 결과물이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취지의 「불교대사림편찬발원문」을 짓고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초자료조사 작업에만 약 10년이 소요되었고, 1991년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서야 이곳을 구심점으로 본격적인 사전편찬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3년여를 재정초 작업에 힘을 기울

8) 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 권1-16,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82-2019.

인 끝에 1994년에 전체항목의 약 30%에 달하는 한국불교항목을 새로이 추가 추출하고 15만여 항목의 기초자료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지나서 본격적인 집필·윤문작업에 착수하였다. 1999년 1월에 1·2권을 출간한 이후 매년 한 권씩 출간하여 현재 16권이 출간된 상태이다.

이 사전의 특장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대한 올림말을 꼽을 수 있다. 올림말이 많다는 사실 하나가 사전의 가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전의 일차적 기능과 효용은 모르거나 확인하고 싶은 용어에 대한 지식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사전은 불교종합백과사전을 표방한 만큼 올림말의 범위를 특정 분야에 치우치게 선정하지 않았다. 올림말 관련 언어에서도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를 전공자에게 맡겨 싣고 있다. 둘째, 정의 내리기와 전거 용례를 엄밀하고 객관적이며 참신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사전들의 정의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전거 중심의 근거 있는 정의를 보여준다. 전거 용례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실음으로써 이용자의 이해와 활용 폭을 크게 넓혔다. 이제까지의 전거 용례가 사전에서 구색 갖추기 식의 액세서리였다면 이 사전에서 비로소 그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범불교 용어를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후 개별 전문 사전 출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교학 일반, 선학, 선어, 공안, 중관, 유식, 천태, 그리고 인지명 사전, 사찰 사전, 불교의례 사전 등으로 깊이와 지평을 넓힌 전문 사전들을 펴낼 수 있는 자산과 동력을 사회에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편찬 시기가 오래되면서 얻어진 소득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전산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졌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축적되고 성장한 연구원들의 안목과 능력도 깊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당연한 귀결은 아니다. 이하에서 언급하겠지만 수십 년간의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짚어지고 추정되는 그 그늘의 단면도 살펴보겠다.

2. 불교 사전의 속성

필요에 따라 개념 규정을 하고 논지를 전개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낱낱 어휘의 개념을 매번 규정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면 부지하세월이 지나도 소논문 한 쪽 쓰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소제목을 붙인 연유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시작한다. '속성'은 국어사전에 ①일반적 뜻으로는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그리고 ②철학 용어로서는 사물의 현상적 성질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징이나 성질로 써도 될 것을 굳이 '속성'이란 단어를 선택한 필자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단어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불교 사전은 전문 사전인가? 이용자는 한정적인 이들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평소 의문을 '속성'이란 말에 담아 제기하고 싶었다. 필자의 단어 선택과 어휘 감각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이유에서 선택하였다. 일반 어휘 사전의 경우에는 특화된 사전도 있지만 대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든 대상으로 하며 한정되지 않는다. 필자는 국어사전 편집 과정에 잠시나마 참여한 적이 있다. 일반적인 국어사전 말고 전문적인 국어사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을 내었는데, 이용자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불교 사전 편찬 집필 과정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필자 자신, 이용자를 생각으로조차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당연히 불교에 관심 있거나 관련 분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 다른 한번은 이용자를 조직이든 필자 개인이든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간과했던 데서 사전 이용자는 고려 대상에서 멀어진 경우이다.

사전을 만들어놨으니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라는 식의 인식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를 지레 제한하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잠재적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또한 사전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환경도 크게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전의 성격과 지향성은 편찬 발원자의 철학에만 의지할 일이 아니다.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 바로 사전의 성격과 지향성의 정초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것이 사전 편찬 작업에 잠시나마 참여했고 이용자이기도 한 필자의 생각이다.

1) 불교 사전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는 불교 사전 편찬에서는 후발이었던 터라 초창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사전을 많이 참조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어온 우리나라와 그보다는 사정이 나은 일본 역시 어느 한 개인의 발심과 원력에 의지하여 사전이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탄생을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전을 만드는 제반 주변 환경과 서비스 도구가 달라졌으며, 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불교 사전 역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에서 과거의 한계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사전(事前) 기초 작업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각종 전적에서 항목을 채집하고 권위가 인정되는 사전에서 정의를 복사하여 항목 별로 기초 카드를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집필자들은 기초 카드를 참조하여 집필하는데, 집필자 수준에 따라서 이 카드의 활용도는 천차만별이다. 그야말로 참조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이에서 한층 나은 원고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 분야에 따라 역량이 축적된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으며, 전공자 수준에 따라서도 분야별로 원고의 질 편차가 상존한다. 전문 인력이면서 사전 편찬과 집필에서도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현실적·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인적 자원의 문제를 국가에 호소해서 될 일도 아니며, 몇몇 사람의 인식 환기로 간단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에 기댈 일은 더구나 아니다. '불교'라는 특정 부문의 사전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학술 역량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는 비단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지 않고 세습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 경제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처럼 사전 편찬에서도 권력만으로 자리를 잡고 일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이 경우, 외부에서 개입할 명분이나 여지가 없기에 더 심각하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이의 그늘도 있다. 매년 성과를 벽돌 찍어내듯이 내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평가를 검증 받아온 만큼 이 사전이 갖는 비중과 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평가와 상호 피드백은 제한적이다. 일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심사자의 평가나 연구원 자체의 광고 선전이 이 사전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것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적이고 공개된 평가 과정과 방법에 대한 모색, 관련 연구자와 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이 전무한 실정은 남은 작업의 전망마저 다소 어둡게 만든다.[9]

이처럼 현실적 문제들은 있으나 거질(巨帙)의 이 사전이 관련 학계와 사회에 긍정적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나 면모를 갖춘 불교 사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학술 활동에서 연구자들이 의지할 만한 자원을 마련하였고, 불교 이외 주변 학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비판적 시각에서 암(暗)을 조명하였다면 이하에서는 『가산불교대사림』의 명(明)을 비추어보겠다.

사전에 대한 일차적 신뢰는 올림말에 있다. 찾고자 하는 용어가 사전에 없거나, 돌고 도는 순환정의에 낙담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올림말 채집과 선정은 사전 집필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복제인간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 개개의 단어 하나하나가 값어치와 생명을 갖고 있다. 비중의 차이가 있고 단어도 생성 소멸하지만 올림말 선정과 절도(節度)

9) 사단법인이라는 이름 하에서건 또는 어떤 개인의 발원에서 만들어진 사전이건 사전은 공공재로 기능한다. 사전의 저작권과 그에 합당한 가치는 분명히 지켜지고 사회적으로 지불되어야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 자체를 망각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철, 『검색, 사전을 삼키다』, 사계절, 2016, 90면. "사전은 이미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누구의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없으면 살기 괴로워지는 것이 되었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사전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있는 집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전의 올림말은 3개의 몸체로 구성된다. 정의, 용례, 참고문헌이 그것이다. 그동안은 정의 중심의 사전이었다면 『가산불교대사림』은 전거 용례 사전으로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용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올림말 정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집필자는 용례를 통해서 올림말 정의를 자기 검증할 수 있고 독자는 근거를 찾아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더는 동시에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용례 번역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오역 또한 현실 역량의 한계인 만큼 눈 밝은 이의 점검의 몫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뿐 아니라 2차 참고문헌의 게재도 고무적이다. 일개 단어를 찾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행위에서 신뢰할 만한 전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풀어갈 이정표와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실하게 집필된 한 항목의 무게는 단행본 한 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이하에서는 쉽게 써진 항목은 없다는 신뢰를 주는 이 사전에서 몇 항목을 직접 살펴보며 개별 전문 분과 사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개별 전문분과 사전의 필요성—선학(禪學) 사전을 중심으로

사전의 전형적 모형으로 각인된 가나다순 배열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불교 사전의 역사는 꽤 오래며, 구성과 형식도 다양하고 그 수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법(法數)을 개념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배열한 문헌, ② 여러 경론의 관련된 내용을 초록한 문헌, ③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조직하고 해설을 붙인 문헌, ④ 용어의 발음과 뜻을 중심으로 서술한 문헌, ⑤ 대장경이나 하나의 경전 또는 어록 등에서 난해한 용어나 구절에 해설을 붙인 문헌'[10] 등이 불교 사전의 모

10) 智冠 編著, 「佛教辭典」 항목, 『伽山佛教大辭林』 권1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9, 223면. "현대의 불교 사전에 앞서 한 문헌이나 유사한 문헌들을 내용별로 분류하거나 일정한 문헌에 나오는 용어를 풀이한 사전 형식의 전적이 적지 않게 있었다. ① 여러 가지 법을 개념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배열한 문헌으

태이자 선구가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문헌들을 사전학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사전편찬자는 사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 활용이라는 면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 속하는 문헌들은 이용자에게 사전의 기능적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며 전문적 색채도 짙다. 이는 집필자가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구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들 문헌들에서 현재와는 다른 구성과 형태의 사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분화되고 전문성을 띤 다양한 사전이 외려 오늘날 더 부족한 실정이라는 문제의식도 갖게 된다.

교학의 경우는 비교적 용어의 개념이 선명하지만, 소위 선어(禪語)로 일컬어지는 선 관련 어휘들은 그 쓰임이 단일하지 않아 전공자가 아니면 미세한 뉘앙스를 잡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선학이 더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교학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후 맥락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쓰인 겉말 그대로 받아들여 텍스트 전체를 오독할 수 있다. 문자를 온전히 긍정하여 받아들이지도 않고(不立) 철저하게 부정하여 물리치지도 않는다(不破)는 취지의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테마로 삼는 선종의 다양한 용어는 그 활용도와 미묘한 맥락에서 전문 사전의 필요성을 더욱 요청받는다.[11] 선학 관련 전문 사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로는 장아함8『중집경 衆集經』(대정장1, p.49b26)과 같은 책9『십상경 十上經』(대정장1, p.52c15),『법집명수경 法集名數經』·『대명삼장법수 大明三藏法數』·『교승법수 教乘法數』 등이 있다. ② 여러 경론의 관련된 내용을 초록한 문헌으로는 양(梁)나라 보창(寶唱)의『경율이상 經律異相』, 당(唐)나라 도세(道世)의『법원주림 法苑珠林』, 원(元)나라 도태(道泰)·지경(智境)의『선림유취 禪林類聚』 등이 있다. ③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조직하고 해설을 붙인 문헌으로는 당나라 이사정(李師政)의『법문명의집 法門名義集』, 당나라 의정(義淨)의『남해기귀내법전 南海寄歸內法傳』, 송(宋)나라 찬녕(贊寧)의『대송승사략 大宋僧史略』 등이 있다. ④ 용어의 발음과 뜻을 중심으로 서술한 문헌으로는 당나라 혜림(慧琳)의『일체경음의 一切經音義』, 보창(寶唱)의『번범어 翻梵語』, 당나라 예언(禮言)의『범어잡명 梵語雜名』, 범어와 티베트어를 대조하여 한역한『번역명의대집 飜譯名義大集 Mahāvyutpatti』, 송나라 법운(法雲)이 범어에 주석을 붙인『번역명의집 翻譯名義集』, 일본 혜황(慧晃)의『지귤역토집 枳橘易土集』 등이 있다. ⑤ 대장경이나 하나의 경전 또는 어록 등에서 난해한 용어나 구절에 해설을 붙인 것으로는 당나라 현응(玄應)의『일체경음의』, 혜림의『일체경음의』, 송나라 목암선경(睦庵善卿)의『조정사원 祖庭事苑』, 명(明)나라 대건(大建)의『선림보훈음의 禪林寶訓音義』, 일본 도충(道忠)의『선림상기전 禪林象器箋』 등이 있다."

11)「不立文字」 항목에 대한『伽山佛教大辭林』 정의의 일부는 "표현 그대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

행히 필자 전공과 관련된 선학 분야에서는 개별 사전이 가능한 시점에 일정 정도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불교 전반의 용어를 수록한 방대한 사전 속에서 개별 분과 항목의 서술은 다른 항목과의 경중을 고려해 집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어느 사전에서나 올림말 정의와 용례에 정확성을 기하면 될 문제이지 전문 개별 사전이 따로 무에 필요한가라는 반문은 어리석다.

대표적인 선학 사전인 일본의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大修館書店, 2000)과 『가산불교대사림』에 수록된 선 관련 몇 항목을 비교 검토한다.

〈불구사심(佛口蛇心)〉

입으로는 부처와 같이 慈愛로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內心은 毒蛇와 같이 極惡한 것을 말한다. 『선학대사전』[12]

부처님의 말에 뱀의 마음.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말은 하지만 마음은 독하다는 뜻으로, 곧 말은 달콤하게 해도 속으로는 독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겉으로는 방편의 언설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본분을 지키는 면모를 가리킨다. 상대를 전략적으로 교란시키는 효와(誵訛)의 화두가 지니는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산불교대사림』[13]

『선학대사전』에는 한자 자구 뜻 그대로를 푼 정의만 있을 뿐이고 예문도 없다. 이 정의만 봐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밖에는 취할 수 없다. 선사들이 펼치는 방편에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기도 하다는 뜻풀이까지 있어야 이 단어를 가지고 텍스트 이해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가산불교대사림』에 실린 용례 한 대목을 보겠다.

다'라는 말이지만 문자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형식의 언어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문자를 두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격외(格外)의 방법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禪學大辭典』 주된 정의에서는 "진실한 불법으로서 정법은 다만 문자나 경전의 교법에 따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체험을 중시하여 불립문자와 教外別傳을 주장하였다."라고 한다. 같은 책, 332-334면.

12)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佛口蛇心」 항목, 『禪學大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2000, 1084a면.

13) 智冠 編著, 앞의 책, 2009, 256면.

『속전등록 續傳燈錄』 권34 「혼원담밀전 混源曇密傳」(대정장51, p.703a28)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와 바람을 불어 불을 놓았다. 고금의 선지식들이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독기를 품고 있었고, 세상의 납자들은 스스로 새장과 우리와 같은 함정에 몸을 던졌다. (…)' 諸佛出世 打劫殺人 祖師西來 吹風放火 古今善知識 佛口蛇心 天下衲僧 自投籠檻 (…)"[14]

부처의 말이든 조사(祖師)의 말이든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뜻으로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선의 정신을 보여준다. 고정불변의 지고한 가치로 상대의 말을 받아먹는 순간 독사에 물려 죽고 만다. 설령, 불구불심(佛口佛心)이라 해도 실제 선문답 담화에 쓰인 경우에는 그 안에 담긴 뜻을 꿰뚫어 읽어야 한다. 같은 한마디 말에 억양포폄(抑揚褒貶)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선기(禪機)〉
禪의 大機大用. 本分宗師가 自得한 기량(力用)으로 坐禪修行하여 얻은 力量. 師家가 學人에 대해 格을 초월하여 발휘하는 수단을 말한다. 『선학대사전』[15]

선의 기틀. 또는 그 기틀에서 드러나는 활발한 작용. '기'는 흠 없이 온전한 근본 기틀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기(大機) 또는 전기(全機)이고, 남김없이 발휘되는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용(大用)과 다르지 않다. 특히 조사선의 선풍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말로서 정해진 틀에 묶이지 않고 갖가지 격률(格律)의 예속을 뛰어넘는 언행 일반(格外)을 가리킨다. 이는 선정(禪定) 체험으로 성취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선의 이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나 행위이기도 하다. 선기의 특징은 분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그때마다 주변의 사물이나 일상의 정황 등에서 찰나 간에 발휘된다는 점이다.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드러내는 방·할(棒喝) 등은 물론이고 언어를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도 대부분 개념과 형식의 파격(破格)과 격외(格外)의 도리가 수반된다. 본분을 겉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기'는 기미 또는 실마리로 볼 수도 있다. 『가산불교대사림』[16]

뜻풀이 필요 없이 단어 그대로 쓰이는 이와 같은 단어가 정의하기 더 어려운

14) 같은 책.
15)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禪機」 항목, 앞의 책, 677c면.
16) 智冠 編著, 「禪機」 항목, 『伽山佛教大辭林』 권13,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11, 918면.

경우에 속한다. 흔히 쓰는 단어이지만 '선기(禪機)'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 이런 단어야말로 상세한 정의가 필요한 대표적 예이다. 또한, 『선학대사전』에서는 일정한 지위에 오른 본분종사(本分宗師) 내지는 스승(師家)이 갖추고 발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뜻풀이하였다. 선문답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승이 학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펼치는 우월한 기량을 뜻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학대사전』에는 이러한 유의 뜻풀이가 다른 항목 정의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선을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오류 중의 하나이며, 제대로 된 사전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도 선종을 대표하는 이 사전에서와 같이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정의 내리기 하는 관습이 전반적으로 한 구절마다 치밀하게 파고드는 일본의 학풍에 진일보한 선(禪)의 본령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 선사의 시험적 질문에 학인이 선기를 발휘해 대응하거나, 역으로 학인이 상대 선사의 뜻이나 경계(境界)를 시험하며 선기를 드러내는 문답은 선문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효와(譊訛)〉

[효와 譊訛] 잡연雜然히 엇갈리고 뒤섞인 것.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선학대사전』[17]

[몰효와 沒譊訛] 효와란 타파해야 할 관문. 타파해야 할 관문이 전혀 없다는 말. 효와란 원래 속이는 말 또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있지만, 종사가 학인을 점검하며 이끌기 위하여 임시로 설정한 장치를 가리킨다. 몰효와란 어떤 말 속에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다는 뜻. 곧 드러난 말 그대로이며, 그 이상의 숨은 뜻이 전혀 없다는 말. 또는 관문을 타파하고 공안이 실현되어 해결해야 될 어떤 장치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깨달은 다음에는 공안도 임시설정이었음이 드러나 더 이상 그것에 미혹하지 않으므로 몰효와라 한다. 『가산불교대사림』[18]

『선학대사전』에 '몰효와(沒譊訛)' 항목은 실려 있지 않고, 『가산불교대사림』

17)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譊訛」 항목, 앞의 책, 306a면.
18) 智冠 編著, 「沒譊訛」 항목, 『伽山佛教大辭林』 권6,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4, 542면.

은 히읗 항목이 집필된 상태가 아니어서 '효와'의 정의를 비교할 수 없지만, 위의 두 정의를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의 깊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선학대사전』의 뜻풀이와 간략한 예문만으로는 이 단어에 담긴 깊이를 길어낼 수 없다. 핵심적인 말이나 내용을 효와라 하는 것인지도 오해하게 만든다. 이 단어는 선문헌에 많이 등장하며 그 함의도 다채롭다. 적어도 ① 핵심 요소・관건, ② 난해한 문제・뚫어야 할 관문, ③ 속임수・수수께끼[19]와 같이 세 갈래의 쓰임을 조명하며 정의와 용례가 수반되어야 할 항목이다.

〈방약무인(傍若無人)〉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태도. 대담한 것. 남의 눈도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선학대사전』[20]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방자하다는 말. 일반적으로 생각이 깊지 못하여 남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의 견해나 입장만이 옳거나 최고인 듯이 여기는 것을 비판하는 말. 조사선에서는 하나의 견해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선지(禪旨)를 전하려 할 때 쓰는 말이다. 『가산불교대사림』[21]

『선학대사전』의 정의는 일반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 등재된 뜻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약무인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선문헌에서 쓰일 경우의 함의는 단일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안에는 억양포폄(抑揚褒貶)의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산불교대사림』에 제시된 용례 가운데 일부분만 살펴보아도 확연하다.

『무문관 無門關』 6칙(대정장48, p.293c17)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듯이 무시하니 양민을 눌러 천민으로 만들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19) 조영미, 「선불교의 공안에서 효와(誵訛)의 속성과 의미기능」, 『불교학보』 제66집, 불교문화연구원, 2013 참조.
20)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傍若無人」 항목, 앞의 책, 1131a면.
21) 智冠 編著, 「傍若無人」 항목, 『伽山佛教大辭林』 권8,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6, 558-559면.

팔았다. 대단히 기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당시 대중들이 모두 가섭과 같이 웃었다면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겠는가? 가섭이 미소를 짓지 않았더라면 또한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겠는가? 黃面瞿曇 傍若無人 壓良爲賤 懸羊頭 賣狗肉 將謂多少奇特 只如當時 大衆都笑 正法眼藏 作麽生傳 設使迦葉不笑 正法眼藏 又作麽生傳"

(…)

『늑담영선사어 泐潭英禪師語』(속고존숙어요1, 卍속장118, p.865b18)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약무인하고 오만한 태도였다고 할 만하다. 그런 말을 했던 바로 그때 눈 밝은 납승을 만났다면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문도 없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釋迦老子 當時 一手指天 一手指地云 天上天下 唯吾獨尊 可謂傍若無人 當初若遇箇明眼衲僧 直教他上天無路 入地無門"[22]

마지막으로 한 항목을 더 살펴보겠다.

〈용두사미(龍頭蛇尾)〉

[용두사미한 龍頭蛇尾漢] 앞에 한 말과 나중의 말이 맞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영웅을 꺾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엎드려 항복하는 사람. 『선학대사전』[23]

[용두사미 龍頭蛇尾] 용 머리에 뱀 꼬리. 시작은 대단한 기세로 벌려놓고 끝은 초라하게 흐린다는 말. 유두무미(有頭無尾)·유시무종(有始無終)과 통한다. 시작은 기대할 만하였지만 결국은 그 기대를 등지고 말았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사선(祖師禪)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단정하여 결론을 맺지 않도록 유도하는 특유의 방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는 뱀 꼬리처럼 최후의 귀착점을 흐리는 수법으로 단단하게 굳은 관념의 소굴을 무력화시키는 선어(禪語)가 된다. 의도적으로 우유부단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확고한 결말을 보금자리로 삼는 집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지닌다. 『가산불교대사림』[24]

『선학대사전』에는 '용두사미한(龍頭蛇尾漢)'으로만 실려 있다. 특별히 사전에서 찾아보아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인지 역시 가볍게 처리된 예이다.

---

22) 같은 책, 558-559면.
23)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 「龍頭蛇尾漢」 항목, 앞의 책, 1277b면.
24) 智冠 編著, 「龍頭蛇尾」 항목, 『伽山佛教大辭林』 권16,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15, 1219면.

선사들은 관념적이거나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현학자연하며 구사하지 않는다.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디디고 있는 이들 선사들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제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며(直指), 대중의 언어로 말한다. 선문헌에는 고사성어, 속담, 속어 등이 빈번하게 쓰인다. 일상적인 말들을 쓰지만 그 말의 속성을 날카롭게 간파하여 반대로 뒤집어 비평어로 십분 활용한다. 그들은 마치 연금술사와도 같이 보잘것없고 낡고 낡아 상투어, 사어(死語)가 되어버린 말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낸다.

세존이 태어나 일곱 걸음 걷고서 사방을 둘러본 후에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天上天下唯我獨尊]"라 한 공안에 대한 보림본(寶林本)의 평석이다.

> 갠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은 고금의 방편 중에서 가장 기괴한 것은 바로 부처(老胡)가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방편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방자했다. 그가 입을 열기 이전에는 뭔가 대단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막상 하나의 소식을 입 밖으로 토해낸 순간 龍頭蛇尾 꼴로 초라해지고 말았다.[25]

보림본이 한 말 곧이곧대로 주행칠보(周行七步)는 용두(龍頭) 격이었으나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한 말은 사미(蛇尾)를 만들고 말았다고 이해한다면 공안을 보는 안목과는 천양지차로 멀어지고 만다. 보림본은 치켜세우는 듯하면서 억누르는(抑揚) 수법으로써 이 공안을 궁구하는 새로운 문제와 시각을 제기하였다. 치켜세운 말도 온전히 치켜세운 말이 아니고 억누른 말도 결코 깎아내린 말이 아니다. 억양포폄(抑揚褒貶)은 조사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상대를 이끌 때 상황에 따라 포(褒, 揚)하기도 하고 폄(貶, 抑)하기도 하며 즐겨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한다는 뜻의 용두사미 성어를 가

25) 慧諶 集, 覺雲 撰, 『禪門拈頌說話』 2칙, 한국불교전서 5책. "古今方便, 如恒河沙, 最奇怪者, 是老胡纔生下, 至唯我獨尊. 然則一期方便, 大似傍若無人. 看他未開口已前, 不妨教人疑着, 及乎吐露箇消息, 便乃龍頭蛇尾."

져와 공안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의 초점을 흩트리거나 말끄트머리를 숨기고 흐려놓는 전술로 활용한다.[26]

선문헌에서의 쓰임 빈도나 중요도로 봐서 가볍게 서술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님이 분명하다.

3. 사전 편찬 지원의 필요성

사전사(辭典史)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후발이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나, 그 내용 기술이나 처리하는 안목에서 뒤져 있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다. 방대한 항목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사전이 개별 종파 사전으로 구성된 일본의 사전과 비교하여 결코 손색이 없음을 앞의 몇 사례가 충분히 증명한다. 적어도 우리나라 선학 부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분과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화급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이 없다면 항목 선정과 정의 서술의 비중 크기에서부터 실패하고 만다. 선어의 경우에는 이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간단히 처리하거나 의미를 닫아 버리는 정의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의미를 부여하고 고정시키는 정의도 모두 지양하고 경계해야 할 서술이기 때문이다. 용례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다. 입맛에 맞는 한두 용례를 들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식의 손쉬운 길을 택해서는 사전 편찬자 내지 집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항목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그에 딱 걸맞은 용례를 찾아 그에 맞는 정의를 입혀주는 것이 사전을 만드는 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사전학에 관심 있는 이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애용하는 말이 있다. Samuel Johnson이 사전편찬자(lexicographer)라는 올림말에 대해 “사전의 작가. 무해하고 틀에 박힌 지겨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 정의이다. 필자는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전의 잘못된 정의는 누군가의 의식에 해를 끼치

26) 조영미, 「『禪門拈頌』의 公案 조직 양상과 언어 활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5, 234-235면 참조.

며, 이 작업은 결코 틀에 박혀서는 안 되며, 지겨운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가장 역동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할 사전편찬의 정의가 왜곡된 예이다.

사전은 학술계의 성과를 후발적으로 정리하여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술계를 선도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개별 학문과 사전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여야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불교 사전의 경우, 여타 불교 전적의 한글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원활히 제공될 때 사전으로서의 내실을 더욱 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일례로 한국불교전서 권5에 수록된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에서 중국의 전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야말로 '한국불교 술어'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런 유의 전적이 번역이 되어 읽혀지면서 단어의 채집도 함께 뒤따를 수 있다.

> 다른 관점의 사전이 두세 종류는 있어야 객관화가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전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전도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책임 있는 누군가에게 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27]

학문의 토대가 되는 영역인 번역, 역주 사업과 사전편찬, 그리고 이들 성과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미루거나 도외시한다면 우리 학술계의 지반은 견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침하되고 말 것이다.

27) 정철, 앞의 책, 90면.

▮ 참고문헌

곽철환 編著,『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編纂所,『禪學大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2000.
吉祥 編著,『佛教大辭典』, 홍법원, 2001.
耘虛龍夏 編著,『佛教辭典』,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61.
이철교・일지・신규탁,『禪學辭典』, 佛地社, 1995.
정승석 편,『佛典解說辭典』, 민족사, 1989.
智冠 編著,『伽山佛教大辭林』 권1-16, 伽山佛教文化硏究院, 1982-2019.
韓國佛教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한국불교대사전』, 보련각, 1982.

정 철,『검색, 사전을 삼키다』, 사계절, 2016.
조영미,「선불교의 공안에서 효와(諵訛)의 속성과 의미기능」,『불교학보』 제66집, 불교문화연구원, 2013, 141-163면.
_____,「『禪門拈頌』의 公案 조직 양상과 언어 활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

Korean Buddhist Dictionary compilation status report

Cho, Young-Mi*

The article outlines the compilation flow of Korean Buddhist dictionaries, discusses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expresses the author's view on the future direction.

First, Unheo Yongha's *Buddhist Dictionary*, which is the first Buddhist dictionary compiled after modern times, and Yi Cheolgyo, Ilji, and Sin Gyutak, the first *dictionary in zen studies*, and finally the compilation flow of Buddhist dictionaries was outlined by taking *KASAN ENCYCLOPEDIA OF BUDDHISM*, which focuses on the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Korean Buddhist academic languages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addition, four other dictionaries were reviewed together in the order of the year they were published.

Through *KASAN ENCYCLOPEDIA OF BUDDHISM*, which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dictionaries, the book deals with light and darkness of Korea's pre-editing reality and why specialized subdivision dictionary are required.

Keywords: Specialized subdivision dictionary, Zen studies, Zen Buddhism.

접수일: 2019.09.29.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

* Researche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